

이탈리아 농업 현황 *

박 영 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1. 서론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농업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토질이 비옥한 중부 유럽 지역과 상대적으로 토질이 척박한 그리스, 이탈리아 남부 지방까지 다양한 여건의 농토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농토에서는 열대 과일류부터 한대 지역 농산물까지 토질에 따른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1인당 경작 규모는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등 북부 유럽이 큰 편이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부 유럽은 비교적 적은 규모의 농지가 대부분이다. 중동부 유럽의 신규 유럽연합 가입국인 프랑스, 독일 등은 대·소농 혼합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탈리아 농업은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면이나 지형면에서 유리하지 못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이어 유럽연합 내 제2의 농업생산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포도는 세계 1위의 생산국이며 과일과 채소류 생산량도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 있다.

본고에서는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농업 현황과 보조정책, 더불어 이탈리아 농업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 (ygpark@krei.re.kr 02-3299-4270).

2. 이탈리아 개황 및 경제전망

2.1. 이탈리아 개황 및 주요 경제지표

2013년 현재, 이탈리아의 인구는 6천만 명에 육박하며 국토면적은 301천 km²로 유럽에서 11번째로 크다. 국가 GDP는 1조 5,600억 유로로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네 번째로 소득이 높다. 상품의 무역수지는 수출이 수입보다 470억 유로 많고, 이중 농식품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다소 많은 편이다. 농식품의 수출과 수입은 전체 교역규모의 10% 미만이며 농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전체의 2% 수준이다.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는 1884년에 수립되었으며 2013년 기준, 이탈리아의 대한민국 수출 품목은 의류, 농약, 의약품, 원동기 및 펌프가 주를 이루며 수출액은 54억 달러이다.

표 1 이탈리아 국가 개황

단위: 천명, 톤, %

국가개황(2013)		우리나라와의 관계(2013)	
인구(1월 기준)(천명)	59,658	외교관계 수립	1884. 6. 26
국토면적(km ²)	301,336	수출(억 달러)	31.3
GDP(10억 유로)	1,560	수출 주요품목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철강판, 선박해양구조품
1인당 GDP(유로)	25,284	수입(억 달러)	53.8
실업률(%)	12.8	수입 주요품목	의류, 농약 및 의약품, 원동기 및 펌프
상품수출액(10억 유로)	490	한국의 대伊투자(억 달러)	4.6
상품수입액(10억 유로)	443	伊의 대韓 투자(억 달러)	5.2
농식품 수출액(10억 유로)	34		
농식품 수입액(10억 유로)	37		
농업의 부가가치비중(%)	1.9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COMEXT, Directorate 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Updated: May 2014,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2013.

이탈리아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기초로 제반 산업이 고루 발달한 가운데 서방 선진 7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기계, 화학, 가구, 의류 등 제조업 부문도 매우 강하다. 대외교역의 60% 정도가 유럽연합의 역내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고 구 식민지인 리비아와 지중해 인접국가, 북부아프리카 및 중동국가와도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2.2. 이탈리아 경제 전망과 문제점

유럽연합에 따르면, 2011~2014년 이탈리아 GDP는 1조 5,700억 유로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조 6,0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마이너스 또는 1% 미만인 경제성장률도 2015년에는 1%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년대비 수출도 2015년에는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그 동안은 수입보다는 수출 증감 폭이 컸으나 2015년부터는 수입이 수출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 폭은 점차 완화되어 2014~2015년에는 +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역시 이전년도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정부 부채율은 133.9%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이탈리아 경제 전망

단위: 백만 유로, %

	2011	2012	2013	2014	2015(전망)
GDP	1,579,946	1,566,912	1,560,024	1,583,461	1,623,546
1인당 GDP	25,469	25,635	25,284	25,701	26,301
GDP 성장률	0.4	-2.4	-1.9	0.6	1.2
수출증감률	6.2	2.1	0.1	3.3	4.3
수입증감률	0.8	-7.0	-2.8	2.7	4.8
실업률	8.4	10.7	12.2	12.8	12.5
무역수지	-1.4	1.1	2.5	3.0	3.0
경상수지	-3.1	-0.4	0.9	1.5	1.5
재정수지	-3.6	-2.9	-2.8	-2.4	-2.0
정부부채율	120.7	127.0	132.6	135.2	133.9

자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uropean Economic Forecast - Spring 2014, Eurostat, Updated: May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탈리아 경제는 고임금에 따른 실업률 증가 문제, 간접비용 상승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공공 분야에서는 연금, 의료, 교육 분야 등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지출 부담이 커지고, 공기업의 적자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공지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부채의 부담과 함께 효과적인 경제정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형성으로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규모의 민간 대기업이 적

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도 신선 식품 또는 와인 산업 등을 제외한 가공부문에 있어서는 대규모 가공기업이 없어 국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현실이다.

3. 농업 연왕

3.1. 농업 구조

2010년을 기준, 이탈리아 국토 면적 중 농촌지역은 13만 6,132km² 로 전체 면적의 45% 차지하고, 도심지역은 3만 9,078km² 로 전체의 13%에 수준이다. 도심과 농업의 중간지대는 12만 6,126km² 이다.

농촌지역의 인구는 1천 2백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이며 중간지역까지 고려할 경우 농촌지역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농촌지역에 고용된 인구는 470만 명으로 가장 적은 고용인원 분포를 보이고 있고 농촌과 도심의 중간지역의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3 이탈리아 지대 성격구분 및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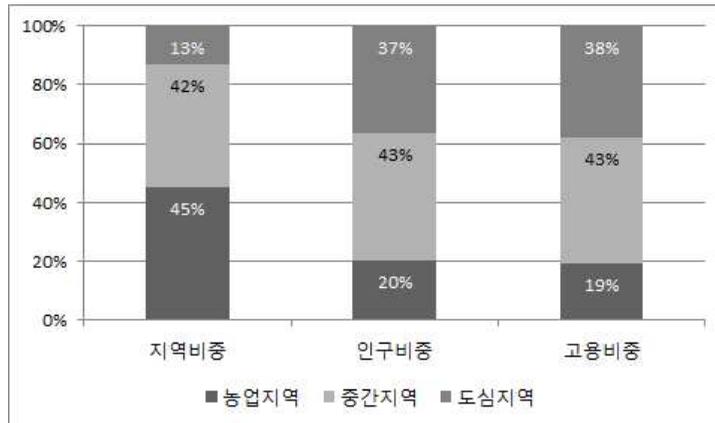
구 분	범위(km ²)	인구(천명)	고용인원(천명)
농촌지역	136,132	12,274	4,698
중간지역	126,126	26,017	10,567
도심지역	39,078	22,050	9,388
전체	301,336	60,341	24,653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3.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13 Rural Development Report. European Commission.

이탈리아의 개별 농가의 재배면적 규모는 2ha 미만이 전체의 50.9%로 EU 평균(49.4%)보다 다소 많다. 35세 미만 농가인구는 5.1%이고(EU 평균 7.5%), 64세 이상 농가인구는 37.2%(EU 평균 29.7%)로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었다.

2ha 이상 보유한 농가 수는 176만 4천 명이며, 이중 여성농업인은 40.6%이다. 전체 토지 중 임대 비중은 55.7%이며 농업고용율은 3.8% 수준이다.

그림 1 이탈리아 지대별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3.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13 Rural Development Report. European Commission.

3.2. 농업생산 및 소득

2013년 이탈리아 농업생산액은 431억 유로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2011~2013년 부류별 생산액은 곡물을 포함한 경종작물이 전체의 60%, 축산분야가 40% 수준이다.

경종작물에서는 곡물 생산액이 적은 반면 채소 및 원예작물이 19.1%, 과일 및 포도 생산이 20.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과일과 포도는 등락하지 않고 꾸준히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다.

축산분야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신선 축산물이 전체 생산액의 24%(98억 유로), 유제품을 비롯한 축산생산물이 15%(60억 유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쇠고기 생산액은 다소 감소한 반면 돼지고기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닭고기 및 오리고기 등의 가금류도 쇠고기와 돼지고기 생산액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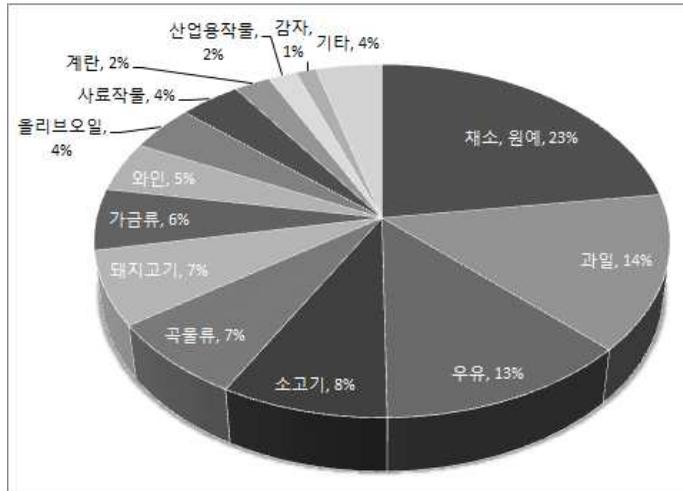
표 4 이탈리아 농산물 생산액

단위: 백만유로, %

구 분	2011	2012	2013		
			금액	비중	
곡물	계	4,894	4,573	4,065	9.4
	밀(사료용포함)	1,895	2,132	1,837	4.3
	호밀	3	3	2	0.0
	보리	203	202	169	0.4
	귀리, 하계혼합곡물	62	60	42	0.1
	옥수수	2,219	1,781	1,584	3.7
	쌀	342	293	292	0.7
	기타곡물	170	102	140	0.3
산업용 작물	계	686	671	680	1.6
	유지종자,유지성과일	252	213	257	0.6
	단백질 작물	85	102	88	0.2
	원료담배	225	219	213	0.5
	사탕무	105	116	98	0.2
	기타작물	19	22	24	0.1
사료작물	1,730	1,618	1,677	3.9	
채소, 원예작물	8,502	8,336	8,247	19.1	
감자	644	603	696	1.6	
과일	5,194	5,489	6,298	14.6	
포도	1,881	2,101	2,714	6.3	
올리브오일	1,479	1,348	1,403	3.3	
기타	431	443	471	1.1	
경종작물 전체(A)	25,441	25,182	26,249	60.9	
축산	계	9,806	10,371	10,447	24.2
	쇠고기	3,449	3,579	3,388	7.9
	돼지고기	2,801	2,969	3,044	7.1
	말	75	80	85	0.2
	사슴 및 염소	191	191	183	0.4
	가금류	2,411	2,645	2,821	6.5
	기타	880	907	927	2.1
축산생산물	전체	6,018	6,342	6,439	14.9
	우유	4,893	4,887	4,993	11.6
	계란	1,075	1,407	1,396	3.2
	기타	50	48	49	0.1
축산전체(B)	15,824	16,713	16,886	39.1	
합계(A+B)	41,265	41,895	43,135	100.0	

자료: Eurostat, Economic Accounts for Agriculture (values at current producer prices). Updated: May 2014, Eurostat.

그림 2 품목(축종)별 생산액



주: 생산액은 2009~2013년 5개년 평균임.

자료: Eurostat, Economic Accounts for Agriculture (values at current basic prices). Updated: May 2014, Eurostat.

표 5 이탈리아 농업 투입액

단위: 백만유로, %

구 분	2011	2012	2013	증감률	
				2012/2011	2013/2012
종자, 종묘	1,300	1,331	1,353	2.4	1.7
에너지	2,808	3,081	3,014	9.7	-2.2
비료, 토양개선	1,528	1,591	1,501	4.1	-5.6
작물보호시설	792	822	875	3.8	6.4
가축병 예방	694	729	745	5.0	2.1
사료	8,553	8,635	8,826	1.0	2.2
농업용자재 유지	765	789	803	3.2	1.8
농업용시설 유지	328	337	343	2.9	1.6
농업서비스	2,270	2,436	2,512	7.3	3.1
기타	2,837	2,763	2,755	-2.6	-0.3
전체	22,426	23,066	23,284	2.9	0.9

자료: Eurostat, Economic Accounts for Agriculture (values at current basic prices). Updated: May 2014, Eurostat.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투입액은 2011년 224억 유로에서 2013년 233억 유로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각 투입요소 항목 중 증가폭이 큰 항목은 작물보호시설, 가축병 예방, 농업서비스 비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이상 기후 발생과 광우병,

구제역, AI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항목별 비중을 보면, 이탈리아 농업 생산액 중 축산, 채소 및 원예 생산액 증가에 따라 사료비용과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투입액과 생산액을 고려한 이탈리아의 농업소득은 160억 유로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다. 2012년 농업소득은 150억 유로로 전년보다 하락하였는데 이는 작물이나 축종의 소득감소보다는 농업보조금 감소 규모가 큰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2013년 들어 농업소득은 2011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농업생산물에서 중간재 소비비용을 제외한 총부가가치는 2011년 255억 유로에서 2013년 268억 유로로 증가하였으며 농업보조금이 감소하고 세금 증가폭이 늘면서 전체적인 농업소득은 동기간 큰 편차가 없었다.

한편 농업소득지수(2005=100)는 2011년이 96.9, 12년 92.6, 13년 99.9로 실질적 소득은 지속적으로 등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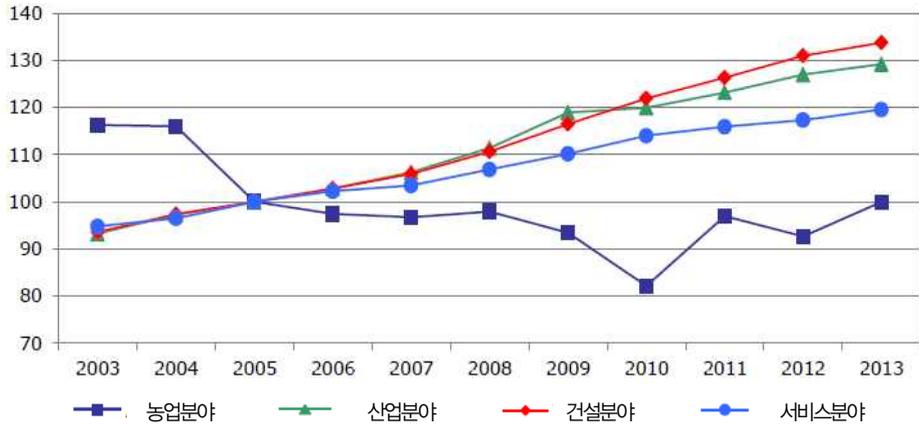
표 6 이탈리아 농업 소득 구조

단위: 백만 유로 %

구 분	2011	2012	2013	증감률		
				2012/2011	2013/2012	
농축산업전체생산액 (A=B+C+D+기타)	47,915	48,632	50,116	1.5	3.1	
작물 분야(B)	25,746	25,384	26,249	-1.4	4.1	
축산분야 (C)	계	15,826	16,713	16,886	5.6	1.0
	동물생산	9,808	10,372	10,448	5.8	0.7
	동물성 생산품	6,018	6,342	6,439	5.4	1.5
	농업서비스	4,781	4,995	-	4.5	0.0
2차 생산활동(D)	1,562	1,540	1,595	-1.5	3.6	
중간재 소비(E)	22,426	23,066	23,284	2.9	0.9	
총부가가치(F=A-E)	25,489	25,566	26,832	0.3	5.0	
고정비용(G)	13,404	13,578	13,699	1.3	0.9	
세금(H)	734	1,103	1,087	50.3	-1.5	
보조금(I)	5,029	4,481	4,441	-10.9	-0.9	
소득(J=F-G-H+I)	16,380	15,367	16,487	-6.2	7.3	
농업소득지수(2005=100)	96.9	92.6	99.9			

자료: Eurostat, Economic Accounts for Agriculture (values at current basic prices; constant prices for *indicator A - see definition on page 9). Updated: May 2014, Eurostat.

그림 3 농업분야 소득 지수 변화(200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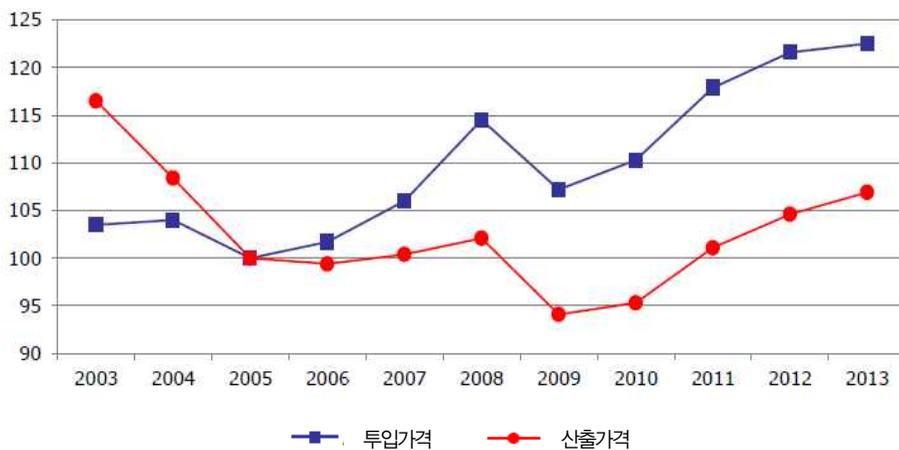


자료: Eurostat, Updated: May 2014, Eurostat.

이탈리아의 농업소득과 타 분야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2005년의 소득을 100으로 하였을 때 농업분야소득은 2010년 크게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변동이 없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기울기만 다를 뿐 타산업의 지수 증가와 매우 대조적이다. 농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서비스, 일반산업, 건설 분야의 소득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건설 분야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농업 투입 및 산출 가격 지수 변화(2005=100)



자료: Eurostat, Updated: May 2014, Eurostat.

이는 농업분야의 투입 및 산출 가격 지수를 보면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5~2013년 이탈리아의 농업 투입가격지수는 103에서 123으로 23p 증가한 반면 산출가격지수는 동기간 103에서 107로 4p 상승에 그쳤다. 위의 농업투입액과 관련하여 가축병 예방이나 작물보호시설 비용의 증가도 한 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3.3. 농산물 교역

이탈리아의 농산물 수출은 335억 유로이며 수입은 371억 유로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자재 및 중간재를 제외한 최종생산물의 무역수지는 +4억 9천 유로로 수출상품에 대한 상품 및 단가의 경쟁력은 높은 상황이다. 중간재 및 원자재 수입은 수입이 수출을 앞서고 있으며 2013년 수출액은 역대 수출이 전년보다 4%, 역외수출이 7% 증가했고 수입액은 역대 수입이 2%, 역외 수입이 4% 증가하였다. 수입은 역내외 차이가 크지 않으나 수출은 역외 수출 규모가 큰 편이다.

표 7 이탈리아 농산물 교역액(2013)

단위: 백만유로, %

구 분	전체	EU 역내 무역		역외무역		
		금액	' 13/' 12	금액	' 13/' 12	
수출	원자재	1,181	813	-6.1	369	-3.0
	중간재	4,488	2,613	6.3	1,875	10.9
	최종 생산물	27,215	18,602	3.8	8,613	6.1
	기타 생산물	668	294	12.8	374	10.3
	전체	33,522	22,321	3.8	11,231	6.7
	농산물수출 비중	8.6	10.7	-	6.2	-
수입	원자재	4,644	2,360	3.1	2,284	12.5
	중간재	10,145	6,790	-1.3	3,356	8.8
	최종 생산물	22,094	18,111	3.7	3,983	-4.1
	기타 생산물	245	218	-9.4	27	-3.5
	전체	37,128	27,479	2.3	9,649	3.8
	농산물수입 비중	10.3	13.3	-	6.0	-
무역수지	원자재	-3,463	-1,547	-	-1,916	-
	중간재	-5,658	-4,177	-	-1,481	-
	최종 생산물	5,122	491	-	4,631	-
	기타 생산물	423	76	-	347	-
	농산물전체	-3,576	-5,158	-	1,582	-

주: 농산물 수출입비중은 이탈리아 전체 수출입에서 농산물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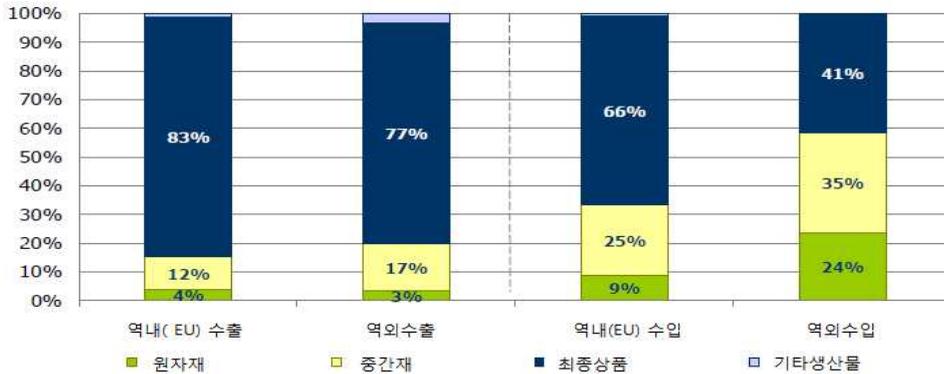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based on COMEXT data.

Updated: May 2014.

전체 무역액 중 수출의 경우 역내 무역규모는 223억 유로, 역외무역은 112억 유로 수준이며 수입은 역내가 275억 유로, 역외는 96억 유로이다.

이탈리아 농산물 무역수지는 가중치가 큰 역내에서 마이너스 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으며 오히려 역외에서는 16억 유로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부류별·지역별 농산물 수출입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based on COMEXT data.
Updated: May 2014. European Commission,

4. EU 공동농업정책(CAP)과 이탈리아 농업보조정책

4.1. 공동농업정책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이란 유럽연합의 농업보조를 위한 시스템으로 공동농업정책 실현을 목표로 공동의 농업예산을 국가별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공동농업정책 예산은 유럽연합 예산의 45% 내외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요 품목별 역내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일정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여 수입 농산물로부터의 역내 농산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내 정책인 공공수매와 국경 정책인 수입관세 및 부과금, 무역 정책인 수출보조 등 세 가지 정책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농가 직접 지불(Direct payment) 제도는 농가 소득 지지와 재고 부담 완화,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가격지지 수준을 낮추는 대신 보상을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보상 지불(Compensatory payment)이라 하여 품목 또는 품목군별로 헥타르(ha)당 일

정 금액을 생산 농가에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2003년 이후 단일 농가 직접 지불금으로 통합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 이후 유럽연합의 가격지지 정책이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농업협정상 허용보조 사업인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이 가격 정책과 더불어 공동농업정책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유럽연합은 농림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 있어서 농가의 농업투자 지원과 농산물 가공·유통의 근대화를 촉진하였고,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촌 소득원 개발 및 직업교육 확대를 추진하였다. 지역 전통과 농촌 환경 유지를 위해서 환경 친화적 농업 방식도 이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였다.

표 8 CAP 이탈리아 예산 집행 현황(2012)

단위 천유로, %

구 분	2012		2007~2012 정책별 집행 비중 평균	
	집행비용	항목별 비중		
직접지불	4,055,614	100.0	63.9	
시장(품목)대책	곡물류	10	-1.3	-0.2
	쌀	0	-0.1	0.0
	식품프로그램	99,157	10.3	1.7
	설탕	3	-0.7	-0.1
	올리브오일	34,420	3.8	0.6
	섬유식물	0	0.0	0.0
	채소, 과일	226,635	27.0	4.3
	포도분야	334,000	36.5	5.8
	판촉활동	8,930	1	0.2
	기타식물	31,759	2.9	0.5
	우유 및 유제품	-18,226	-0.6	-0.1
	쇠고기	1,536	0.2	0.0
	사슴 및 염소고기	0	0.0	0.0
	돼지, 계란, 가금류	11,082	1.4	0.2
	설탕산업 재편성	26,916	18.8	3.0
	기타	2,538	0.8	0.1
계	758,760	100.0	16.0	
농촌개발	1,422,949	100.0	20.1	
전체	6,237,323		100.0	

주: Payments for direct payments and market measures; commitment payments for rural development.

자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07-2012 EAGF Financial Reports) and Commission Decision 2010/236/EU. Updated: November 2013. European Commission,

4.2. 이탈리아 농업에 대한 CAP 예산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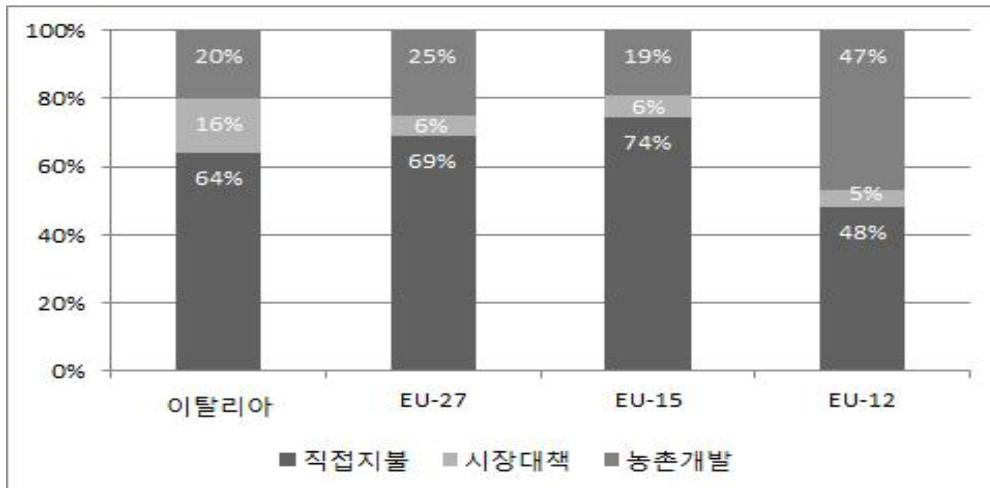
2012년 CAP 예산 중 이탈리아에 집행된 예산은 총 63억 유로로 전체운용예산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 구성은 직접지불이 41억 유로, 식품, 원예, 축산 등 시장과 품목 보조를 위한 예산이 8억 유로, 농촌개발에 지원된 예산이 14억이었다.

이탈리아가 포도 주산지임에 따라 품목(축종)분야에서는 포도에 대한 지원 비중이 36%로 가장 높으며, 채소 및 과일, 설탕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이 높다. 2007~2012 5개 년 간 정책별 집행비중을 보면 직접지불 비중이 64%, 시장과 품목에 대한 보조가 16%, 농촌개발 보조는 20% 수준이었다. 시장과 품목분야의 5개년 평균 역시 포도와 원예 분야의 보조 규모가 많다. 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금 등 축산물에 대한 지원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최근 유럽 내 원예농산물 과잉 생산에 따른 수급 불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격 지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탈리아와 유럽연합 전체의 CAP 예산을 비교해보면, 이탈리아의 경우 직접지불형태가 64%로 유럽연합 전체 평균(69%)보다 다소 낮고 시장과 품목에 대한 보조 비중(16%)이 큰 편이다. 농촌개발에 대한 지원 규모도 유럽연합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EU-12의 경우 농촌개발에 대한 비중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나 회원국이 27개국으로 늘면서 점차 농촌개발보다는 직접지불과 시장 대책의 보조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림 6 이탈리아 CAP 예산의 역내 비교(2007~2012)



자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07-2012 EAGF Financial Reports) and Commission Decision 2010/236/EU. Updated: November 2013, European Commission.

4.3. 직접지불제도 운용 실적

이탈리아는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자 직접지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체 직접지불제도 수혜자는 121만 명이며 집행금액은 40억 6천 유로이다. 직접지불 금액 수준은 500유로 미만인 전체 수혜대상자의 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0~1,250 유로를 받는 대상자가 24%를 차지하고 있다. 10만 유로 이상을 받는 수혜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수혜대상의 2%인 2만~5만 대의 수혜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전체 집행액의 19%를 차지하여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2천~10만 유로대의 수혜대상자에게 지급된 직접지불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대상자 비중이 가장 큰 500유로 미만은 전체 집행금액에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9 생산자 직접지불액 분포(2012)

구 분 (유로)	수혜자		집행금액	
	인원(천명)	비중(%)	금액(천유로)	비중(%)
0 미만	0.9	0.1	-14,933	-0.4
0 ~ 499	491.7	40.5	131,268	3.2
500 ~ 1,249	288.4	23.8	230,553	5.7
1,250 ~ 1999	111.2	9.2	175,972	4.3
2,000 ~ 4,999	161.7	13.3	512,148	12.6
5,000 ~ 9,999	80.6	6.6	563,020	13.9
10,000 ~ 19,999	44.2	3.6	613,013	15.1
20,000 ~ 49,999	25.0	2.1	758,800	18.7
50,000 ~ 99,999	7.1	0.6	485,981	12.0
100,000 ~ 149,999	1.8	0.1	214,638	5.3
150,000 ~ 199,999	0.7	0.1	111,931	2.8
200,000 ~ 249,999	0.3	0.0	68,104	1.7
250,000 ~ 299,999	0.2	0.0	53,208	1.3
300,000 ~ 499,999	0.2	0.0	70,241	1.7
500,000 이상	0.1	0.0	84,654	2.1
계	1,214.0	100.0	4,058,598	100.0

자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Report on the distribution of direct aids to the producers (financial year 2012), March 2014. European Commission,

5. 이탈리아 농업의 안계와 시사점

과거 이탈리아의 농업은 비교적 대량생산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OECD국가들 중 농촌의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로 변모하였다. 또한 산과 구릉지 등이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경지면적은 국토의 45% 수준에 그치면서 호당 경지면적은 자연스레 감소하게 되었다. 이탈리아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고 생산성과 고용 수준이 EU의 평균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농업은 경쟁력 있는 농식품 산업, 식품제조 및 서비스 활동들과 연계되면서 농업 부문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와인 생산량은 프랑스와 선두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선진적인 이탈리아 농업에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농업의 사회적 지위는 낮은 편이다. 천연식품에 대한 선호 집중으로 가공식품 산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다국적 농업기업의 투자유치가 저조한 편이다.

또한 국가적 고령화 추세에 따른 농촌 인력 감소, 농촌의 공공서비스 약화 등에 직면해 있으며 유럽연합의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도 이미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리아 농업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계해 볼 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세계적인 웰빙 음식 선호도 증가에 따라 이탈리아산 올리브오일, 토마토 등 수출이 늘고 있으며 자체소비량의 5배 이상인 쌀 역시 리조또 요리에 알맞은 고급 자포니카로 변모시키고 북유럽에서 선호되는 안남미 생산 비중을 늘리는 등 국내 과일공급량을 수출로 해결하고 있다. 매년의 공급량 등락으로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산 농산물 역시 결국 공급 부분의 조절보다는 수요 창출의 노력의 농업의 가치를 늘리는데 효과적인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 산지연합회 등 농민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이탈리아 농업은 점진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발사믹 식초, 프로슈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등 이탈리아 농업을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우리나라의 하향식 농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2014.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정가혜. 2012.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미령 외. 2009. 외국의 농촌정책 동향과 시사점: 영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일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OECD 대표부. 2005. 이태리 경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주OECD 대표부.

참고사이트

외교부 (www.mofa.go.kr)

FAOSTAT (www.fao.org)

Wikipedia (en.wikipedia.org)

Eurostat (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EC (ec.europa.eu)

CIA The World Factbook (www.cia.gov)